

농진청, '참동진' 상표 가치 높인다

보급 3년만에 재배면적 6993헥타르 달성... 신동진·동진찰 이어 전북 3위 신동진과 품종판별 기술 확보

정부는 전북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온 '신동진' 벼의 병 발생이 많아 지자 대채 품종으로 '참동진'을 선정하고 보급 확대에 힘써왔다. 정부 시책과 더불어 '참동진'의 우수한 특성이 알려지면서 보급 3년 만인 2023년 재배면적이 6,993헥타르(ha)로 늘었다. 전국 대표 품종인 '신동진'의 우수한 장점(중대립 쌀알 밥맛)은 유지하면서 단점(비현외바름병 저항성)을 보완했고 신동진(49.7%), 동진찰(11.2)에 이어 참동진(6.5)은 전북 3위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참동진'의 상표 가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품종판별 기술과 분자표지 개발 등 품질 관리 기반을 마련, 고품질 원료곡이 생산, 유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른 품종과의 혼입 여부를 가려 품종을 판별하는 기술 요구에 부응해 '참동진'과 '신동진', '강대찬' 등 중



농촌진흥청은 '참동진' 쌀의 상표 가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품종판별 기술 등 품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 원료곡이 생산·유통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립 품종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디엔에이(DNA) 분자표지를 개발했다. 현재 국립종자원에서 '참동진'을 '정부보급종'으로 보급하고 있다. 국립종자원(<http://www.secdet.go.kr>)과

전북자원(063-530-3620)에서 진량 소진 시까지 개발 분양 신청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품종판별 기술을 공유하고 벼(쌀) 품

종 검정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하는 등 현장에서 '참동진'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참동진' 수확 작기는 이삭이 낀 후 55일쯤, 겉보기에 벼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다. 제때 수확해 45도(C) 이하 온도에서 천천히 건조한 후 15도 이하 저온에서 저장하면 이듬해 햅쌀이 나오기 전까지 쌀 품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유통과 김기영 과장은 "최근 벼 품종을 상표로 내세워 좋은 평가를 받는 상품이 많아지면서 쌀 상표 육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밥맛 우수한 '참동진'의 경쟁력을 기르고 상표 가치를 높여려면 관계 기관과 생산자, 마곡종합처리장(RPC) 및 유통업자 등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7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노인사랑노인복지센터 및 평화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설 명절 맞아 나눔 실천

농어촌공 전북, 노인사랑복지센터·평화사회복지관 등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정문)는 7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인사랑노인복지센터 및 평화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데 동참하기 위해 기부하게 되었으며 이번 기부를 통해 설 명절 취약계층에게 작

은 위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북본부는 매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기부물품을 전달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농촌집고쳐주기,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사회를 위한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는 고령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의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농업인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거나 경지정리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에 한한다.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크게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나뉘며, 매도의 경우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ha)과 농지매도대금(공사에 매도 시)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금(월 40만원/ha)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원),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지급된다.

이것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하면 면적(ha)당 지급단가가 매매의 경우 월 27.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임대의 경우 월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승한 셈이다. /장수=교관호 기자

한전KDN '사옥신축공사공고' 지역제한규정 위반에 혼란 야기

'국가계약법 준용 무시' 한전KDN입찰공고 지역건설업체 파장 불러 지역제한 입찰대상인 추정가격 83억원 미만임에도 전국 입찰로 공고

전북 건설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지역 내 공기업 발주공사가 지역제한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상입찰로 공고돼 업계 관계자들의 고심을 키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7일 국가계약법 준용기관인 준시장형 공기업 한전KDN이 입찰공고(2024년 1월 11일)한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건축공사'가 지역제한 대상 공사이다. 그런데도 전국 대상입찰로 공고됐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한전KDN(주)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이번 한전KDN(주)측이 입찰공고한 '한전KDN 전북사업처 사옥 신축 건축공사'의 경우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의 경우(정부 83억원 이하) 해당 광역시·도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준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인 한전KDN(주)이 본공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임에도

도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전KDN(주) 전북사업처'의 경우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사옥 신축이라는 상징적인 사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는 "공사물량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 사정을 감안하여 현행 국가계약법령 상 일반적인 제한 경쟁계약 원칙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옥기 기자

한전 남전주지사, 설 맞이 '사랑의 마음택배' 봉사 시행

한국전력공사 남전주지사(지사장 박형선)는 7일 설 명절을 맞아 설음식 꾸러미를 준비해 복지 사각지대 소외 계층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마음택배' 봉사활동을 벌였다.

남전주지사 사회봉사단원 10여 명은 떡국 떡, 갯감 등 설 음식을 준비, 복지관(꽃밭정리복지관)에서 추천 받은 40명의 재가어르신 택을 직접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한전 남전주지사

직원들의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매월 모금한 사회공헌 활동 기금인 '러브펀드'를 재원으로 시행했다.

한 재가 어르신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직접 집까지 전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형선 남전주지사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력공사 남전주지사는 7일 설 명절을 맞아 설음식 꾸러미를 준비해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마음택배' 봉사활동을 벌였다.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15개사 모집

바이오진흥원,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 분야 대표기업 육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19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생명 식품기업 15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혁신형 유망기업을 선발한다.

이후 단계별 성장환경 조성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부를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농생명·식품산업 분야 제조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분사 또는 사업장이 도내 소재 기업이면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대표기업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창업스타 및 성장스타 총 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소 2년에서 각 단계별 성과요건 충족 시 심의를 거쳐 최대 7년까지 기술 역량강화 및 고도화 지원, 사업화 지원 성장전략 수립 지원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지나해 아쉽게 시작한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기업들이 맞춤형 지원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해 전부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도내 농생명분야 유망기업들이 전북특별자치도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고성장상을 이룩하길 바란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농생명 산업 구조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표기업 육성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바이오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